

Calvin의 학교교육 관점에서 한국 학교교육의 방안 모색

강 문 규 교수
(안양대학교)

1. 들어가는 말

현대 한국교육을 논할 때 교육의 위기, 특히 공교육(公敎育)의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재수생의 증가가 해마다 늘어나며,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음으로 인하여 학교의 공교육 보다는 학원가로 몰리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사(私)교육비 지출 때문에 가정경제의 파탄이 초래되고 있으며, 소위 기러기 아빠의 등장 등과 같은 상황이 오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마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왜 이러한 교육현상이 한국에서 야기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교육학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을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교육의 기능적 측면이 강하게 만연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교육적 상황은 교육을 개

인적 차원에서 출세와 부귀나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를 포함한 그 이전의 모든 교육을 대학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명목상으로만 교육일 뿐 실제적으로는 교육이 아닌 전혀 다른 활동으로 변질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은 인성교육을 포함하여 미성숙(未成熟)에서 성숙(成熟)으로 가는 전인적인 교육을 벗어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쳐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풍토에 영향을 받은 한국 학교교육은 교육의 딜레마를 한층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육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과연 없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칼빈의 학교교육으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칼빈의 학교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교회가 학교교육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며, 학교교육이 교회교육의 연장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은 예배에서 듣고 받아들인 것을 학교교육에서 더 깊게 다져지고 보충 되었으며, 또한 해명되고 적용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반대로 학교에서 배운 것은 역시 교회생활과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했다. 예배는 여기서 신앙적 삶을 종합하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⁴⁵⁾ 본 소논문은 현대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칼빈의 학교교육 관점에서 한국의 학교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칼빈이 어떠한 의도로 학교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학교교육이 어떻게 행하여 졌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한국의 학교교육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점

학교는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형식적) 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여기서 형식적 교육이란 특정한 교육의 이상(理想)과 목적에 따라 이것의 실현을 위한 의도(意圖)와 계획(計劃)을 지속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실시

45) 정일웅, "칼빈의 교리교육과 교육목회", 신학지남 90년 봄호, 통권 223호 (서울: 신학지남사, 1990), 72.

하는 교육을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하고자 하는 일정한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 따라 선정된 교육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학습자에게 교육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형식적 교육의 개념 정의라면, 학교는 확실히 형식적 교육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제도화된 틀 속에서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춘 교사가 일정한 연령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선된 문화유산을 교육내용(教育內容)으로 구성하여 계획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성숙한 기성세대(既成世代)가 미성숙자(未成熟者)인 학습세대(學習世代)들을 인도하여, 보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상태로 형성하며, 그리고 미성숙자들의 내면(內面)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 가능성을 계발하고 그들이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의 정의와 일맥상통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형태의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교육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학교교육이 현대 한국 학교교육에 들어오면서 집단적인 교육 방식(教育方式)을 강하게 채택하면서 학습자들을 일정한 틀 속에 맞추어 넣어 획일화를 강하게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교육적인 이론(理論)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 학교교육의 계획성(計劃性)과 조직성(組織性)은 지식과 가치관(價値觀)과 사고방식(思考方式)을 비롯하여 행동양식(行動樣式)의 획일화를 가져왔다. <학교교육의 획일화와 관련하여 현대 한국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육은 학습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학교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와 같은 학력위주의 형태로 변질 되었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학교교육이 형식적 학력(學力)을 수여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보편화 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보편화는 획일화된 교육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획일화된 교육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학습자의 다양한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다양하며 자유로운 사고(思考)의 발전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개인의 고유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는 기회를 축소시키고 나아가서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학력위주(學力爲主)의 형태는 한 개인이 사회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사회활동에 필요한 능력과 크게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 학력에 의하여 신분(身分)이 결정되는 폐쇄사회(閉鎖社會)를 형성하여 원래의 교육적인 의미가 약화되어 현대교육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대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들은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될 것이며 이것의 해결방안은 교육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문화(文化) 전반에 걸친 문제의식(問題意識)과 연관된다. 이 의식(意識)과 관련하여 21세기에 있어서 교육학적(教育學的)으로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는 이제 인간의 의미에 대한 물음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한 마디로 지식정보화(知識情報化)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화 사회 안에서 교육 경쟁력(競爭力)은 바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核心)이다. 학교는 국가를 지탱해 주는 주요한 요소로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일 뿐 아니라, 그 사회의 기본적인 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들 중 심각한 문제점은 학교교육에 일반 시장논리(市場論理)가 도입되어 학교교육의 문제를 더욱더 심화 시키고 있으며, 학교의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을 교육의 논리와 교육적 식견(識見)을 가진 교육 전문가에 의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교육의 큰 딜레마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의 한계와 인류의 생존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는 생태학적(生態學的)인 문제들을 비롯하여 국제정치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한국 학교교육은 가치혼란 속에서 방향을 상실한 상태다. 이러한 교육의 딜레마에서 21세기 한국 학교교육은 어떠한 교육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육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먼저 상고(相考)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도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랜 기간을 통하여 누적된 문화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체계화된 교육활동은 인간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이론(理論)과 실제(實

題)는 인간에게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를 문제제기를 해야만 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학습자와 피학습자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데, 결국 교육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으나, 인간의 삶의 의미와 그 의미를 위한 여러 가지 인간의 경험구성(經驗構成)을 도외시 한 채 외적인 가치(價値)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노력은 실패를 거듭 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삶의 의미와 경험구성을 기초로 한 교육의 내면적(內面的)인 가치를 지향(志向) 할 때 학교교육의 혁신이 일어 날 것이며 현대 한국 교육의 문제는 해결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삶의 의미와 인간의 내면적인 가치를 지향하며 전인적(全人的)인 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기독교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이 바로 기독교교육의 출발점인 동시에 교육의 궁극적인 완성이다.

이것을 위하여 16세기의 신학자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동시에, 페다고기아 데이(Paedagogia Dei, 하나님의 교육)를 부르짖으며, 교육에 있어서 역시 개혁을 시도 하였던 칼빈의 학교교육을 숙고(熟考)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것으로 사려된다.

3. 칼빈의 교육관

존 칼빈의 핵심적 시대적 배경인 종교개혁(宗教改革) 시대는 정신사(精神史)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화기 중의 하나로서, 종교사(宗教史)에서 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에 있어서도 개혁기(改革期)였다. 지방 국가의 발생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의 부상과 점점 더 활동적인 부르조아 계급의 성장 뿐 아니라 농부들의 자신감의 발달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문화의 변형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응이 필요하게 하였고, 모든 생각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⁴⁶⁾ 그 외에도 수 세기 동안 중세를 지배하였던 교회가 삶과 문

1)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종교개혁의 기여에 대한 가장 훌륭한 연구로는 F. Paulsen, *Geschichte des gelehrten Unterrichts auf den deutschen Schulen und Universitäten von Ausgang des Mittelalters bis zur gegenwart*, 3rd ed., 2 vols.(Leipzig, 1919-1921);

화의 다른 측면과 아울러 교육에 있어

서도 그 지배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지방 통치자들은 궁정에서 일할 전문교육을 통하여 훈련받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도회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관련 있는 과목들을 교육시켜 줄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열심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심대한 영향을 끼친 개혁의 자극은 종교계에 서부터 왔으며, 그 힘은 유럽의 전반적인 삶, 특히 교육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만큼 역동적이었다. 교회와 수도원학교의 몰락을 촉진시키고, 교육의 훨씬 광범위한 목적과 기능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이었다. 그 후로부터 교육은 교회 뿐 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게 되었는데, 그 궁극적 결과인 국가가 통제하는 오늘날과 같은 세속교육(世俗教育)은 칼빈과 완전한 세속화(世俗化)를 반대하였던 다른 종교 개혁자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이 세속화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므로, 21세기에 있어서 칼빈이 우리에게 말할 중요한 것이 많은 것은, 곧 교육에 관한 종교의 영향, 특히 종교적 윤리의 영향의 학교교육(學校教育)이다.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존 칼빈은 체계화 시키고 완성한 완성자⁴⁷⁾로서 세계 정신사(精神史)에 크나큰 족적을 남겼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평할 때 위대한 신학자로 찬사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기독교 교육학자로서의 면모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 그것은 바로 칼빈이 살았던 당시에 교육학이나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칼빈 자신이 교육을 따로 떼어 놓고 말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의 목회 활동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

Paulsen, German Education Past and Present, trans. T. Lorenz (London: Unwin, 1912); H.G. Cood, *A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947); E. P. Cubberly, *A Brief History of Education* (Boston: Houghton-Mifflin, 1922)이다.

47)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기서 완성자라는 의미는 종교개혁의 목적과 의도를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킴으로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 사람이라는 뜻이다.

특히 칼빈이 제네바에서 보여준 교육활동은 제네바 교회와 시민에 대한 교육활동이었음을 즉각(卽刻) 알게 된다.⁴⁸⁾ 특히 독일의 저명한 교리사가(敎理史家)인 Karl Holl은 칼빈을 가리켜 “세계적 수준의 민족교육가”라고 칭하였는데⁴⁹⁾, 그 이유는 칼빈이 제네바 시민들을 위해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 등을 집필하고 가르쳤으며, 1537년에 시의회(市議會)에서 통과를 본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대한 제의서]를 통해 제네바 시민들을 기독교인으로서 엄격히 훈련하고 치리(治理)하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말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한 칼빈은 유럽 전역에서 찾아온 많은 신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종교개혁 정신을 전 유럽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칼빈의 교육활동은 그의 신학과 학교와의 관련성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우리는 그의 학교교육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하였고(discipuli Dei), 인간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평생에 걸친 교육의 과정으로 표현하였으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사역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교육, 즉 하나님의 교육(Paedagogia Dei)의 관점에서 이해했다.⁵⁰⁾ 물론 그의 신학 안에는 교육학적인 은유만 아니라 군사적인 용어나 법률적인 용어도 쉽게 눈에 띈다. 그러나 교육에 관련하여 그는 단순히 용어만을 빌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사고의 통로로 신학적인 주제들을 숙고(熟考)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학교교육과 관련된 근본적인 교육사상의 기초는 성경이다. 그는 성경을 인간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로 보았다. 그리고 칼빈이 추구한 교육의 목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종교교육 못지않게 인문교육도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가 행한 일반교육의 최종 목표 역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었다.⁵¹⁾ 그리고

48)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86.

49) Karl Holl, *Gesammelte Aufsätze zur Kirchengeschichte, III, Der Westen, Johannes Calvin*(Tübingen, 1928), 273.

50) Bernhard Buschbeck, "Johannes Calvin(1509-1564)," Henning Schröer/Dietrich Zilleßen(Hrsg.), *Klassiker der Religionspädagogik*(Frankfurt am Main, 1989), 37.

51) J. C. Coetzee, *The Calvinistic Contribution Toward the Development of Art in the*

그가 강조한 교육의 방법도 첫째는 성령의 역사와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과 바른 교육을 위하여 훈련이 필요한 인간의 방법으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장으로 칼빈은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국가를 생각하고, 이 네 가지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교육사상에 기인하여 종교개혁자인 요한 낙스는 “제네바는 기독교 훈련을 위한 하나의 완전한 학교”⁵²⁾ 라고 말하였다.

4. 칼빈의 학교 설립

(1)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

1538년 1월 12일 칼빈은 노교수인 코디에(Cordier)와 사우니에(Saunier)와 함께 공립학교와 관계된 중요한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試案)』(Plan for the schools of geneva : Genevae Ordo et Ratio Docen in Gymnasio)이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다:⁵³⁾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인문학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도움을 준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문학과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제네바의 학교는 성직자를 위한 준비와 바른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조직되어야 한다.

칼빈은 상기의 문서를 바탕으로, 학교를 목사를 양성하는 것과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즉 성직자 양성 뿐 만 아니라 시민교육(市

World, 201-225. 김영규, *기독교교육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76-78 참조. 박동순, “칼빈과 교육”, *칼빈과 개혁신학* (광주: 광신대학교출판부, 1999), 318. 재인용.

52) 박동순, 318.

53) 강원용, “칼빈의 敎育活動과 그 意義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78), 34.

이 문서는 A.L.Heminjard의 9권으로 된 책 *Correspondance des reformateurs* (제네바, 1866-97)의 제 4권 pp. 455-460에 수록되어 있다.

民教育)을 양성 하는 곳으로 보았다. 그가 말하는 바른 시민이란 일반적인 도덕(道德)과 국가관(國家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교육 받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리고 칼빈이 의도하는 성직자 양성이란, 학교를 일반 세속적인 학문과 교육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은 바로 그가 학교를 교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교육장소로 지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칼빈의 교육의 핵심인 하나님의 교육, 즉 페다고기아 데이(Paedagogia Dei)의 교육 사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이다.

(2)교회헌법(教會憲法)

교회헌법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후 3년간 슈트라스부르크(Straß burg)에 있으면서 준비한 것으로 주로 부처(Martin Bucer)를 통하여 교회 규칙(規則)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슈트라스부르크(Straß burg)에서 돌아온 뒤에 교회헌법(教會憲法, Ecclesiastical Ordinances : Projet d'ordonances Ecclesiastique)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1541년 11월 20일에 법제화(法制化)되었다.⁵⁴⁾ 칼빈은 이 문서에서 교육생활의 질서를 법(法)으로 조직 하려고 하였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학교교육과 관계된 것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후손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교회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목사와 시민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⁵⁵⁾

칼빈은 교회헌법(教會憲法)에서 역시 그의 교육사상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그는 교회와 학교의 상호 연관성을 확고하게 표명한다.

54)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 September and October 1541" 54.

55) John, Calvin, op. cit., 63.

그는 교회의 교육이 학교의 교육과 무관하지 않음을 말하면서, 학교의 교육이 기독교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칼빈은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의 후손을 교육시킬 것을 언급하면서, 후손 교육을 위해서도 역시 학교가 세워져야 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칼빈에게 있어서 학교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경외 하는 교육'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는 학교에서 교리문답(敎理問答)과 성경(聖經)을 가르쳐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기독교교육 수업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示唆)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학교를 성직자의 양성과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곳으로 칼빈은 명백히 한다. 따라서 칼빈이 의도하는 학교교육은 현대의 세속적인 교육의 욕망이 배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는 학교를 통하여 일반적인 지식 기술이 아니라, 교육의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나아가서 영적인 공급을 받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 어느 곳에서, 어떤 지위에서 일하든지 개인의 세속적인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칼빈의 교육 사상은 시장논리가 도입되어 있는 오늘날 한국학교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원래의 취지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교회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3) 제네바 대학⁵⁶⁾

칼빈의 말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사업들 중의 하나는 그가 염

56) Elmer L. Towns, "John Calvin" in towns, 170. 유재덕, *기독교교육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158에서 재인용.

타운즈는 다음과 같이 제네바대학에 대하여 기술을 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아동부터 대략 16세까지를 위한 스콜라 프리바다(예과-4년)와 대학교인 스콜라 퍼블리카(본과-3년)로 나뉘어졌다. 스콜라퍼블리카는 처음에는 교양과목과 신학만을 가르쳤으나 칼빈은 법학과 의학이 추가되기를 희망하였다. 전체 아카데미는 총장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학생의 입학과 학위수여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스콜라 퍼블리카를 감독한 반면에 그의 보조자가 스콜라 프리바다의 교장이 되었다. 총장위하에는 히브리어, 희랍어, 교양과목 그리고 신학을 담당하는 공립교수가 있었고 총장위하에는 이사와 교사들이 있었다."

원하여 오던 제네바 대학을 설립한 일이었다. 그는 슈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 머물고 있는 동안 Strum으로부터 제네바 대학을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웠으며, 슈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서 돌아오자 그는 『대교회헌법』(1541)에서 학교설립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1556년 그는 재차 슈트라스부르크(Strasbourg)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거기서 학교설립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었다. 슈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서 제네바에 돌아올 때부터 그가 가지기 시작한 이상은 끊임없는 장애로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1559년 6월 5일 드디어 제네바 대학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이 아카데미는 고등부(Schola Privata)와 신학부(Schola Publica)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칼빈이 세상을 떠난 1564년에는 세계 각처에서 온 학생들로 고등부는 1,200명, 신학부는 3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이 학교의 고등부는 7개의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진급은 종합성적 평가로 이루어졌다. 칼빈의 아카데미는 사상 처음으로 학년제에 의한 교육을 실현하므로, 학급편성(學級編成)이라는 새 제도를 물려주었다.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스코틀랜드, 영국, 헝가리, 화란 등 세계 각지에서 정열에 넘치는 젊은 일꾼들을 훈련 시켜 개혁교회의 역군으로 파송한 사실은 현대교육에 큰 귀감이 된다. 실제로 이 아카데미는 세계의 개혁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온상이 되었다. 이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청년들은 자기나라로 돌아가 개혁정신을 심었으므로 개혁정신과 칼빈주의는 급속도로 전 유럽에 흩어지게 되었다.

실로 이 아카데미는 신정국가(神政國家)를 세우려는 칼빈에게 있어서 면류관과도 같은 성취였다. 칼빈은 신정국가의 개념을 교육에도 도입 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헌법(敎會憲法)이 학교법(學校法)까지 주도케 한 사실이다. 그는 학교를 교회가 주관하게 하면서, 학교를 교회헌법으로 관리하게 하고, 학교를 교회의 소관으로 두었다. 이것은 칼빈이 교육을 통하여 신정국가의 이상을 실현 시키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다. 결론적으로 칼빈에게서 학교교육은 교회교육의 지속적인 것으로서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 의미부여가 강하게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칼빈은 아카데미의 설립을 통하여 그의 인문학과(人文學

科)에 대한 견해를 실현시켰으며 교육을 통한 개혁을 계속해 나갔다. 여기서 한 가지 루터와 비교할 때 발견되는 점은 칼빈은 처음부터 국제성이 눈에 띄었으나, 반면에 루터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인 경향이 더 강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⁵⁷⁾

(4) 제네바대학의 교과과정

칼빈은 『제네바학교를 위한 시안(市案)』에서 세속학과(世俗學科)에 대한 훈련은 종교의 훈련⁵⁸⁾과 같이 본질적인 것임을 말하였고, 인문교육(人文教育)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 고전적인 교양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훨씬 적극적이었다. 그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적(古典的)인 지식을 높이 평가하고 이것을 각 급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였다.⁵⁹⁾ 특히 제네바대학의 교과과정(敎科課程)을 보면 칼빈이 인문과목(人文科目)을 중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제네바 대학의 고등부(Schola Privata)는 7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일 아래 학년(學年)이 7학년이다. 각 학년의 교과과정(敎科課程)은 다음과 같다⁶⁰⁾:

- Class 7: ① French-Latin 독본을 이용한 알파벳의 공부와
음절형성 연습
② Latin-French 요리문답서로 읽기 연습

57) 강원용, op. cit., 36

58) Eavey는 칼빈이 세운 아카데미의 종교적 훈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는 수업시간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기도나 주기도문을 암송함으로 끝난다 낮에 한 시간은 시편을 노래하였고, 오후 4시에는 전교생이 모여 주기도문을 암송하였고, 신앙을 고백하며 십계명을 암송하였다. 수요일 아침에는 학생과 교사들이 설교를 경청하였다. 토요일 오후에는 전교생이 교리문답서를 공부하였고, 주일에는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남은 시간은 설교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벤튼 이비, 김근수/신정기 역, 기독교교육사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6), 220. 박동순, 323에서 재인용.

59) 정웅섭, 기독교교육개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48.

60) 강원용, op. cit., 45.

Class 6 : ① 라틴어 격변화와 동사활용 공부

② 스피치법

③ 쓰기연습

④ 회화를 위한 쉬운 라틴어 문장의 반복

Class 5 : ① 스피치법

② 구문의 요소

③ Virgil의 Bucolica 읽기

④ 작문 첫 단계

Class 4 : ① 라틴 구문론 계속 : Cicero 의 서신으로 작문과 함께 공부

② 시형론 : Ovid 의 De Tristibus와 De Pont로 음절과 그 가치를 공부

③ 그리스어 시작 : 격변화와 동사 활용

Class 3 : ① 그리스어문법의 체계적 학습

②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비교

③ Cicero 편지, De Amicitia와 De Senectute를 라틴어와 희랍어로 공부

④ Virgil의 Aeneas, Caesar와 Isocrates의 글읽기

Class 2 : ① 읽기 중점지도 : Livy, Xenophon, Polybius, Herodian, Homer 등

② 논리학 시작 : 명제와 삼단논법 : Cicero의 연설로부터 설명

③ 1주일에 한 번씩 그리스어로 복음서 공부

Class 1 : ① Melancthon의 책으로부터 조직적인 논리학 공부

② Cicero, Demosthenes, homo, Virgil의 글을 통한 수사학

③ 한 달에 2회 연설

④ 1주일 한 시간씩 그리스어로 된 바울서신이나 다른 사도의 편지 읽고 듣기

이상과 같은 교과과정은 라틴어, 희랍어, 문학(文學), 윤리학(倫理學), 수사학(修辭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신학부(Schola Publica)에서는 신학과 철학, 히브리어, 예술 등을 부가하여 가르쳤다. 이와 같이 칼빈은 그의 교육활동에서 인문주의(人文主義)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폭넓은 교과과정을 통한 세계와의 대화를 시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교육은 오늘의 교회와 기독교교육에 새로운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된다.

칼빈이 생각한 교육은 전인적인 교육일 뿐 아니라, 동시에 폭 넓은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 사상은 "하나님의 일반은총(Gratia communis Dei)"이라는 신학적인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상은 원래 신학적으로 구원과 연관된 교리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하나님의 특별은총(Gratia particulrais Dei)"와 대비되면서, 논의 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일반은총에 대하여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인 Luis Berkhof(1873-1957)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반은총은 일반적으로 인류 전체에게 공통적인 은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선택받은 자든 선택받지 못한 자든 복음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통적인 은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은총인 것을 언급한다.⁶¹⁾ Berkhof의 논리는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은총(特別恩寵)을 받은 자들로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공통적인 은총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은총(一般恩寵)의 핵심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교육학적으로 재해석 하면, 바로 일반학문 역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도외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에 반

61) Luis Berkhof, 권수경, 이상원 옮김, 벌코프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682.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이 제네바학교를 위한 시안(市案)에서 말한 교육에 있어서 세속학과(世俗學科)에 대한 훈련을 강조한 것과 실제로 제네바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기독교 학과목 뿐 아니라 일반학과목을 커리큘럼에 넣은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5. 칼빈의 학교교육의 특징

(1)칼빈의 학교교육은 교회 중심적이며, 성경 중심적이다.

칼빈은 앞서 제네바학교를 위한 시안(市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배움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강요(基督教綱要)에서도 “인간의 정신은 무력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지식에도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⁶²⁾ 칼빈은 학교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기독교적(基督敎的)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학교에서 교리문답(敎理問答)과 성경수업(聖經授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기도와 예배가 반드시 드러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2)인문주의적(人文主義的)이다.

이 부분에서 강원용은 이러한 교과를 통하여 세계와의 대화를 추구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⁶³⁾ 칼빈은 아카데미의 칙령(勅令)에서도 교수들에게 이르기를 <자신들이 해설하는 작품의 저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해설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주의하고 있다.⁶⁴⁾ 칼빈은 철저한 인문주의자(人文主義者)였다.

6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vi, 1. tr.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chigan: Wm.B.Eerdmans Publishing co, 1960).

63) 강원용, op. cit., 46.

64) 박성민,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43.

(3)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값싸고 의무적(義務的)인 것으로 시행이 되어졌다.

16세기 제네바에서는 최소한 교육의 숲을 피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⁶⁵⁾ 오늘날 한국의 사교육비(私教育費)의 과다지출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칼빈 시대의 제네바 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적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다.

(4)학교는 기부금(寄附金)을 통하여 운영이 되어졌었다.

유언으로 기증된 돈, 벌금으로 들어오는 소득, 시의 재정 충당금 등으로 운영이 되었으며 칼빈 자신도 직접 기부금(寄附金)을 거두러 다니기도 하였다.⁶⁶⁾ 오늘날의 비리사학재단, 심지어는 기독교재단의 학교 까지도 학생들의 학비를 개인의 부(副)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은 참으로 비칼빈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

6. 칼빈의 교육적 영향

칼빈의 교육사상(教育思想)은 여러 나라에 확대되어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는데, 네델란드에서는 종래)에 학교가 없었던 촌락에까지 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여 일반 서민(庶民)의 보통 교육을 적극 추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宗教改革者) 요한 낙스는 공립의 무료 보통 교육제도의 수립을 요청하였으며, 교육교본(教育教本)을 발간하였는데, 이 내용은 칼빈의 사상을 옮긴 것으로 스코틀랜드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영국에서도 청교도들에 의하여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등에 큰 영향을 주었고, 미국의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3개 대학교인 하바드, 예일, 프린스턴은

65) 김재권,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228.

66) 박성민,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41.

본래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칼빈주의적 학교로서 다른 학문분야는 물론 신학적으로도 학생들에게 건전한 기초를 제공해 주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636년에 설립된 하바드는 주로 목사들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첫 회 졸업생의 과반 수 이상이 목사직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스코틀랜드계 장로교인들이 세운 프린스턴은 철저하게 칼빈주의적 기초를 가진 학교였다. 벤 크로프트는 “보통교육의 창건자(創建者)요 무료 의무교육(義務教育)의 창시자(創始者)는 바로 칼빈이다. 칼빈주의가 성행한 곳마다 국민들의 지력(智力)을 고취시켰으며, 모든 교구(教區)에 공립(公立) 초등학교를 세웠다”고 말했다.⁶⁷⁾ 이와 같이 칼빈의 교육적 영향은 서구문화의 기초를 만들었고, 교육의 일반화에 지대한 공적을 세웠다.

7. 결론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이란,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제도화된 틀 속에서 전문적인 소양(素養)과 지식을 갖춘 교사가 일정한 연령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하는 곳이다. 학교는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하여지고 있는 교육을 의도화, 계획화, 조직화하여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학교교육은 이러한 학교라는 조직적인 기관을 통하여 사회가 발전 하면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생활양식들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학교교육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교육으로 지칭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교육이라 할 때 학교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교교육이 한국에서는 학력위주의 사회를 조성하고 있다. 학력위주의 사회는 학력에 의해 신분이 결정되는 폐쇄사회를 형성할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케 한다.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이 간과된 학교교육은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 시킴으로 결국 교육에 의한 딜레마를 더욱 더 심화 시키고 있다.

오늘날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은 학교교육만의 개혁을 통하여 해

67) 박동순, op. cit., 329.

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 사회적인 의식과 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을 뜻한다. 이러한 전 사회적인 의식과 제도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반교육학적으로 답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문제는 결국 기독교교육학적으로 풀 수밖에 없으며, 특히 칼빈의 학교교육으로 눈을 돌리면, 칼빈은 학교교육을 단순한 지식전달이나 또는 학습자의 잠재능력을 길러주어 학력위주의 사회를 조성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제네바학교를 위한 시안과 교회헌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학교교육은 교회 중심적이며, 성경 중심으로 학생들을 교육 시킬 것을 주장하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칼빈 당시의 제네바의 교육은 철저하게 기독교교육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동시에 학교교육을 교회교육의 연장으로 간주했다. 오늘날 한국 학교교육의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내재적인 교육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특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교육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종교 다원주의 물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으로 인하여 기독교라는 한 특정적인 신앙을 제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 학교들은 기독교교육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사명이 있으며, 그 학교에서 교육 받는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기독교교육으로 양육해 나갈 때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지리라 사려 된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의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되는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청년 성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선교적 후퇴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한 가지로 학원선교로 눈을 돌릴 것을 제안한다. 어릴 때의 신앙교육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큰 일꾼이요,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움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칼빈의 교육방법은 오늘날 방향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도 생명수와 같은 교육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장 일변도의 선교정책을 펴면서 정작 미래를 위한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선교적

투자는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늦으나마 한국교회는 학원으로 눈을 돌려 오늘날 학교의 위기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나서므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며, 또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원용, “칼빈의 敎育活動과 그 意義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 1978.
- 고용수. “칼빈의 敎育사상”, 장신논단 제5집. 서울 : 장신대출판부, 1989.
- 김기숙. “칼빈의 신지식에 입각한 기독교교육의 원리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 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재권,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박동순, “칼빈과 敎育”, 칼빈과 개혁신학. 광주: 광신대학교출판부, 1999.
- 박성민,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양금희. 종교개혁과 敎育사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오인탁외 4인편집. 기독교교육사. 서울: 교육목회, 1994.
- 유재덕, 기독교교육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유해무, “기독교고등교육, 교회의 사명인가?” 개혁신학과 교회 통권 14호.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출판위원회, 2003.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신대출판부, 1984.
- 정용섭, 기독교교육개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 정일웅, “칼빈의 교리교육과 敎育목회”, 신학지남 90년 봄호, 통권

- 223호. 서울: 신학지남사, 1990.
-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총신대출판부, 1996.
-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vi, 1. tr.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chigan: Wm.B.Eerdmans Publishing co, 1960.
- Calvin, John, *Theological Treatises*,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 September and October 1541"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IV.1962.
- Holl Karl, *Gesammelte Aufsätze zur Kirchengeschichte*, III, *Der Westen, Johannes Calvin*.Tübingen, 1928.
- Buschbeck Bernhard, "Johannes Calvin(1509-1564)", Hennig Schröer/Dietrich Zilleßen(Hrsg.), *Klassiker der Religionspädagogik*. Frankfurt am Main, 1989.
- Warfield, B. B,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6.
- 존 H. 리스. **칼빈의 삶의 신학**. 이용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리차드 R. 오스머 편집. **교육목회의 회복**.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